

해양수산 통합행정 25년 기념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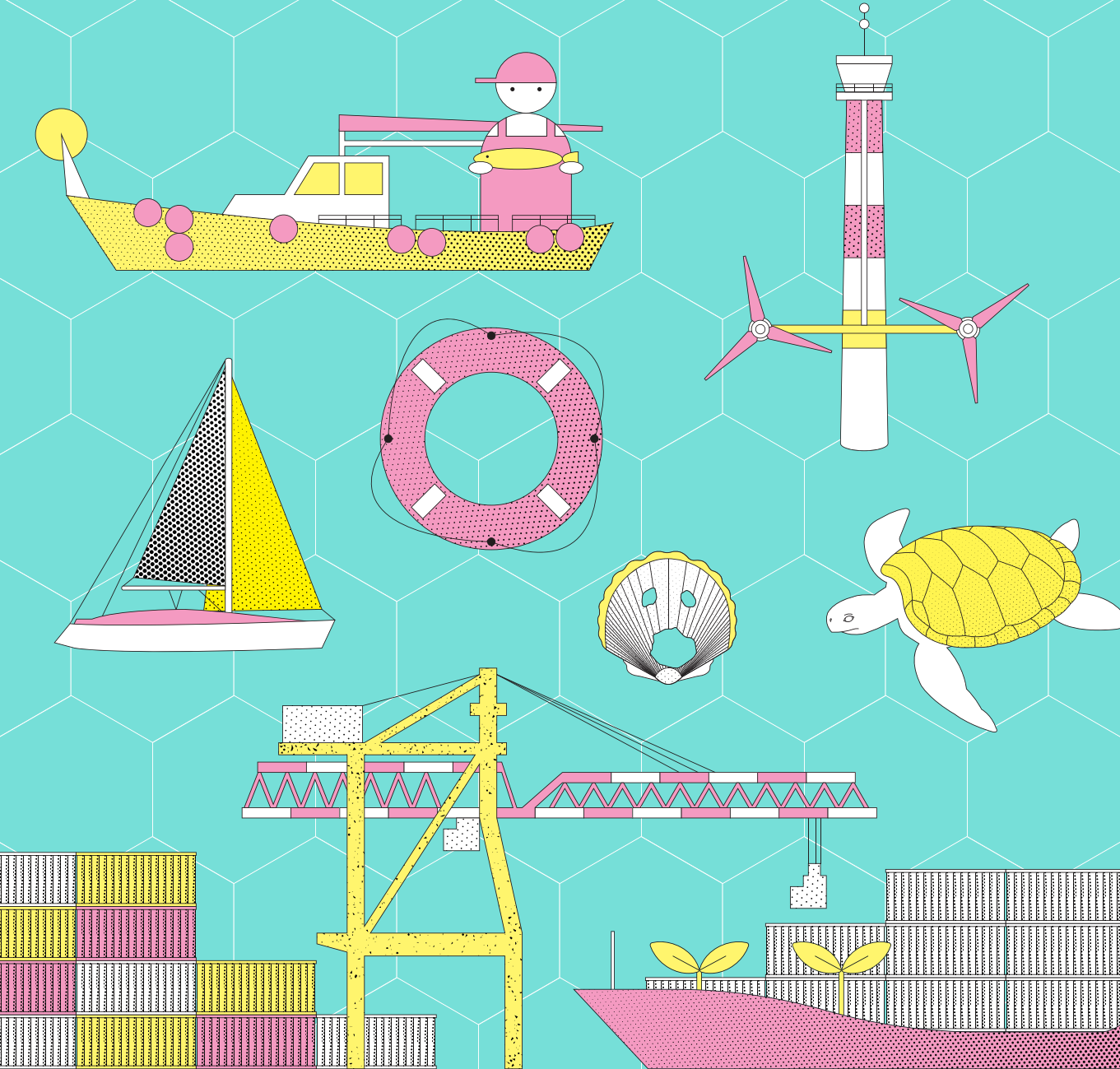
The 25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MOF

우리가 열어가는 바다

The Ocean We Open

'embrace = our', 'growth = open',
and 'coexistence = ocean'

포용·성장·상생



전시 컨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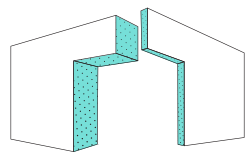
이번 전시는 해양수산부의 3대 목표인 '포용', '성장', '상생'이라는 키워드에서 영감을 받아, '포용=우리', '성장=열어가다', '상생=바다'로 개념을 확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열어가다'라는 전시 제목은 국가의 정책을 넘어 우리 모두가 하나의 마음으로 바다를 바라보고 또 지켜나가자는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꺼안고 있는 느낌의 전시 도입부 디자인은 서로가 마주하고 감싸는 '포용'을 의미하며, 엇갈리게 세워진 중앙 벽체들은 배에 달린 프로펠러 모양처럼 힘차게 나아가는 '성장'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번 전시 구조물의 재료를 100%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종이를 사용하여, '상생' 즉 환경보호에 적극 동참하는 우리의 노력을 표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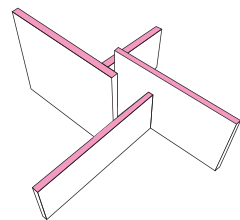
Theme of the Exhibition and Design Concept

Inspired by the three goals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MOF), which are 'embrace' 'growth', and 'coexistence', this exhibition began by expanding these concepts to 'embrace = our', 'growth = open', and 'coexistence = ocean'. The title of this exhibition, 'The Ocean We Open', includes the desire to observe and protect the sea with one united heart and mind beyond national polic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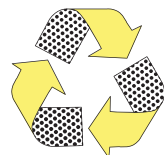
The design of the introduction of this exhibition means 'coexistence', facing and embracing each other. The center wall structure set up alternatively means 'growth' moving forward powerfully in the likeness of a propeller on a ship. In addition, the materials of this exhibition structure are 100% recyclable eco-friendly paper, expressing the desire of our museum to actively participate in protecting 'life', that is, the environment.



안전하고 행복한
포용의 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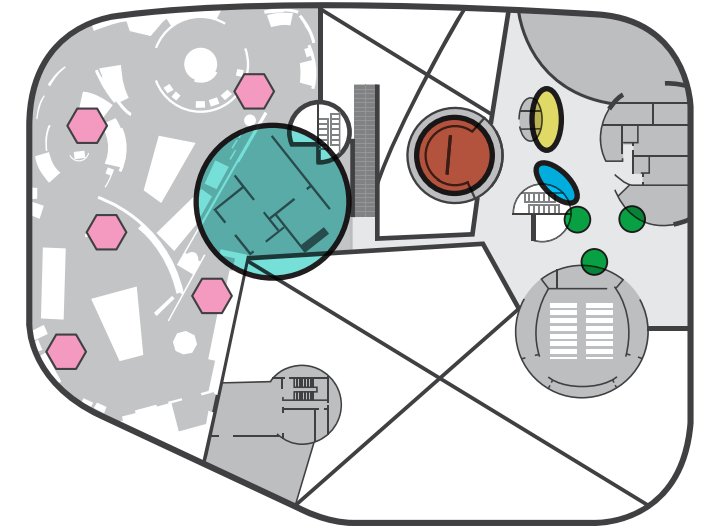
디지털과 혁신이 이끄는
성장의 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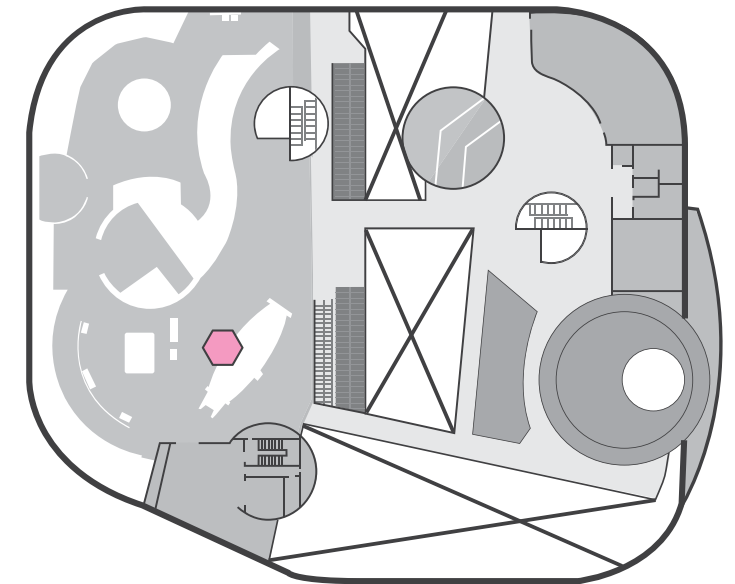
세대와 세계를 아우르는
상생의 바다

전시장 맵

4F



3F



- 기념전시 공간
- 우리 바다를 위해 함께 해주세요 (영상존)
- 우리 바다를 지켰는지 확인해 주세요 (Yes or No 인포그래픽 체험)
우리 바다를 위해 약속해 주세요 (메시지 존)
- 우리 바다를 그려주세요 (그리기 체험)
- 우리 바다를 바라봐 주세요 (VR체험)
- 스탬프 투어

프롤로그

오래전부터 바다는 인류의 벗으로서 때로는 모험의 대상으로, 때로는 생명력의 원천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바다 주변에서 머물던 인류는 도전 정신과 용기를 가지고 미지의 세계인 먼 바다로 나아갔으며, 생명의 근원인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왔습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소중한 자원이며, 미래 세대에 전해주어야 할 소중한 공간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바다를 지키고 가꾸기 위한 노력의 주체는 국가가 될 수도 있으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광활한 바다이지만,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가치를 잊지 않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바로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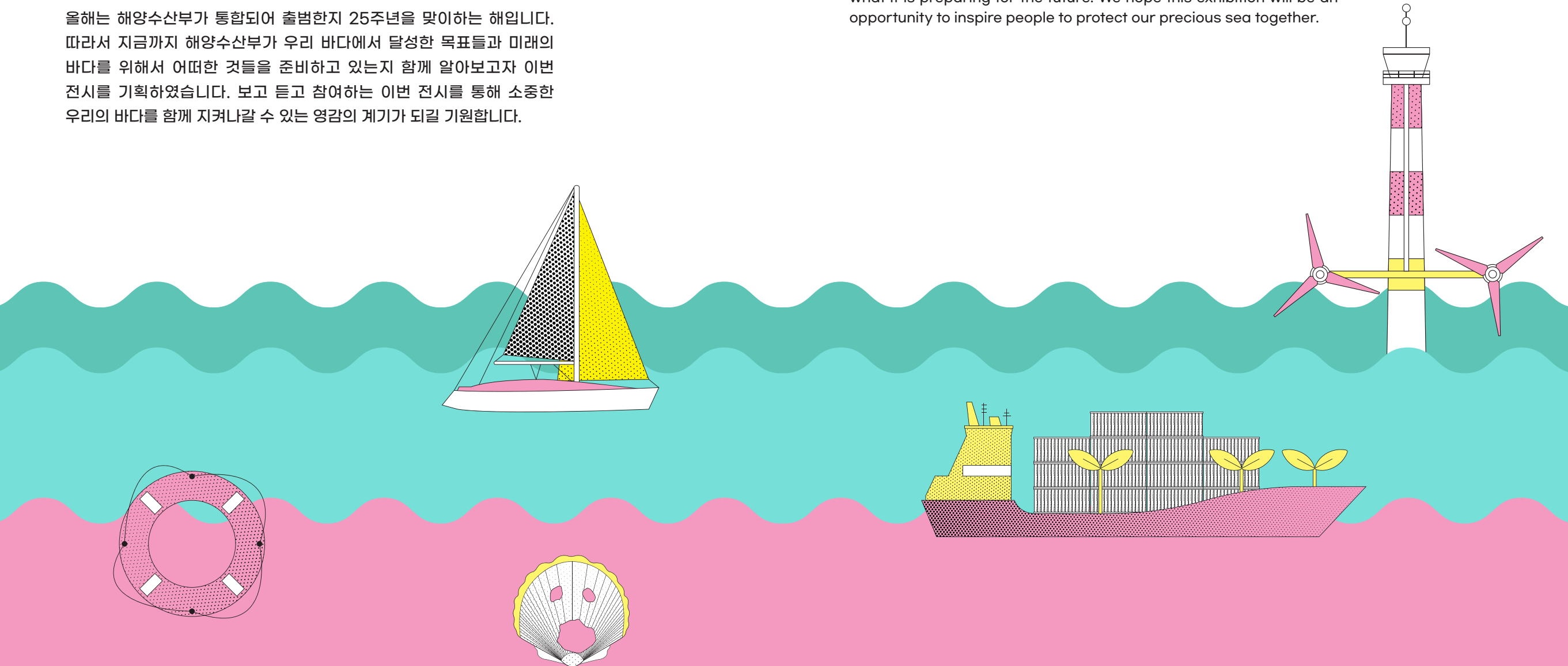
올해는 해양수산부가 통합되어 출범한지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해양수산부가 우리 바다에서 달성한 목표들과 미래의 바다를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이번 전시를 기획하였습니다. 보고 듣고 참여하는 이번 전시를 통해 소중한 우리의 바다를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영감의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Prologue

From ancient times, the sea has been with humanity as a friend, sometimes as a spirit of adventure, and sometimes as a source of vital impetus. The sea is a valuable resource for us, and a priceless place that should be handed down to generations to come.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our precious sea can fall on the state politically or on all of us communally. Moving forward without forgetting that we cultivate the extensively connected sea 'all together' is a value we should not forget as we move into the future.

This year marks the 25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MOF after being integrated. Therefore, we would like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learn about the goals that the MOF has set for our sea so far, and what it is preparing for the future. We hope this exhibition will be an opportunity to inspire people to protect our precious sea together.



Part. 1 포용의 바다, 해양수산부가 걸어온 길

Part 1. The Ocean of Embrace, the Path the MOF Has Followed

해양수산부는 해양과 수산 분야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을 대표해 국내·외 다방면에서 우리 바다의 전반적인 정책을 세우고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해운항만청과 수선청 등의 여러 부처에 분산된 업무를 결합하여 탄생한 해양수산부는 '글로벌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합니다. 주요목표는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고 '안전한 바다'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1996~2008



2008~2013



2013~2016



2016~현재



해양수산부 설립목적

해양자원 개발 및
해양과학기술 진흥

해운업 육성 및
항만의 건설·운영

수산자원 관리
수산업 진흥 및
어촌개발

선박·선원 관리와
해양안전

해양환경보전 및
연안관리



해운항만청 현판식 사진 | 1977



수선청 현판식 | 1966



해양정보센터 개소식 사진 | 1978. 6. 1.



제1회 해운의 날 기념식 사진 | 1977. 3. 12.



제1회 해운의 날 기념사진 | 1977. 3. 12.



해양수산부 출범 | 1966. 8. 8.

Part.2 성장의 바다, 해양수산부가 열어온 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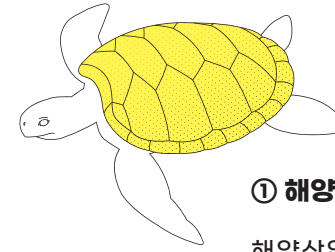
Part 2. The Ocean of Growth, the Ocean Opened by the MOF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6조에 따라 정부는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뚜렷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에 맞는 일정과 세부적인 계획을 결정합니다. 개인의 하루 일과부터 전 인류가 이루고자하는 목표까지 발전하기 위한 노력은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해양수산부는 1996년 출범 이후로 현재와 미래의 우리 국민과 우리 바다를 위해서 목표와 그에 맞는 전략을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총 3차로 진행 중인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으로 중요한 이슈들을 알 수 있으며, 분야별로 나누어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으로 우리의 바다를 가꾸기 위해 앞으로 필요한 목표들을 알 수 있습니다.

1차 (2004~2010)	2차 (2011~2020)	3차 (2021~2030)
비전 청색혁명을 통한 해양부국 실현	비전 세계를 주도하는 선진 해양강국 실현	비전 전환의 시대, 생명의 바다, 풍요로운 미래
3대 목표 생명력 넘치는 해양국토 창조	3대 목표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의 관리 및 보전	3대 목표 안전하고 행복한 포용의 바다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개발	신해양산업의 육성 및 전통적 해양산업의 고도화	디지털과 혁신이 이끄는 성장의 바다
지식기반을 갖춘 해양산업 창출	신해양질서의 능동적 수용을 통한 해양영역 확대	세대와 세계를 아우르는 상생의 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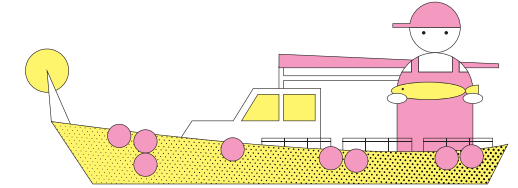


① 해양

해양산업, 자원, 연안 및 도서, 환경 및 생태계, 문화, 기후변화 등 다양한 정책을 수행·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가 해양 정책의 큰 방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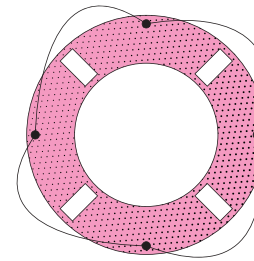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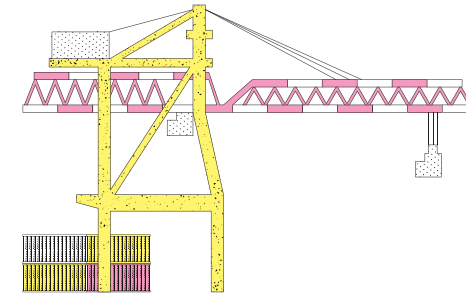
② 수산

수산자원, 수산양식·가공·유통, 어촌·어항개발 등 다양한 수산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이용·관리 정책을 수립합니다.



③ 해운·항만

해운, 물류 산업 등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항만산업 육성 등의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 전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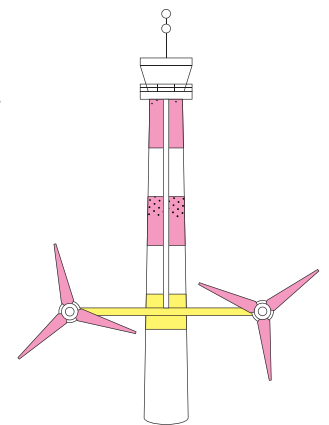


④ 해양 안전

해양재난 관련 법·제도 운영, 해사 안전문화 대책 수립 및 시행, 항로표지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해양재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며 해양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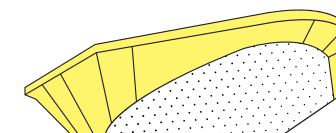
⑤ 스마트 해양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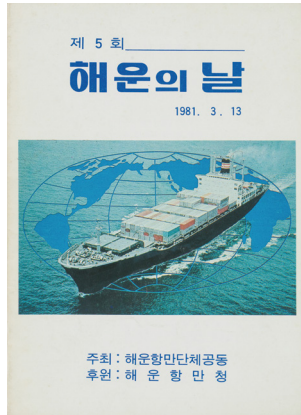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다양한 해양수산 분야에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R&D 사업 규모를 3조원에서 11조원으로 늘어 성장에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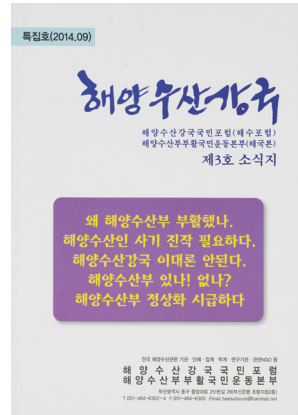
⑥ 해양 문화와 교육

해양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정신적·물질적 산물의 총체인 해양문화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계승하며 해양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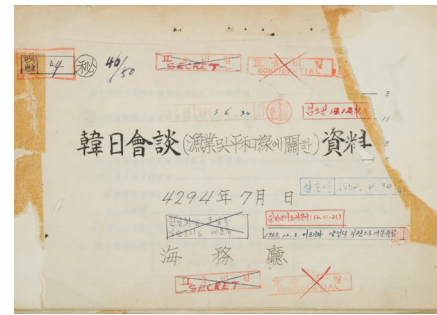




해운의 날 안내서 | 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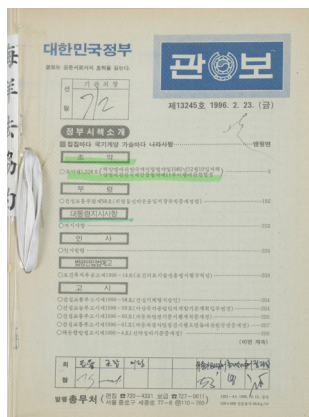
해양수산강국 제3호 소식지 |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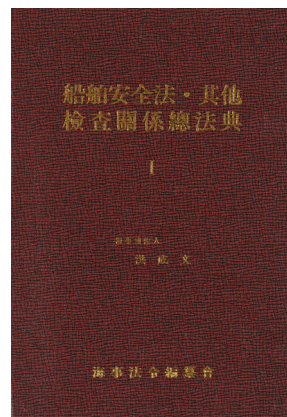
한일회담 자료(어업및 평화선) | 1961



바다의 날 안내서 | 1996



대한민국정부 관보 | 1996



선박안전법 | 1993

Part.3 상생의 바다, 앞으로 지켜나갈 바다

Part 3. The Ocean of Coexistence, the Ocean We Should Protect Together

해양을 보호하는 일은 단순히 개인이나 특정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양환경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전 지구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2006년 「해양환경관리법」 제정 및 여러 부처·산하기관과의 협업·연구개발을 통해 해양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을 진행하여 해양환경 오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행동권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힘으로 인류와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명의 바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해양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

해양수산부는 향후 10년간 해양 폐기물 등의 체계적인 관리 정책방향과 추진과제가 담긴 '제 1차(2021~203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해양활용 대상 폐기물을 확대하여 어장 개선자료로 재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속기관인 각 지방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청항선을 이용한 폐기물해양수거업이나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해양환경공단에서는 해양환경과 오염방제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교육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 탄소중립(Net-Zero)

해양수산부에서는 탄소 저감을 위한 「친환경선박법」과 친환경 항만 인프라 조성을 위한 「항만대기질법」 등을 제정하며 친환경 정책을 추진 중이며, 천연 탄소 흡수원(블루카본)인 갯벌 및 해양생태계의 복원과 바다숲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해양바이오수소와 더불어 조수·파도·해류 온도차 발전 등의 친환경 해양에너지도 개발 중입니다.

3. 바다 오염수

방사성물질을 감시하기 위하여 국내 해안의 조사 정점을 39개소로 확대하고, 국내 입항 선박 중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등의 방사능물질 오염 지역에서 선박평형수(선박의 평형을 맞추기 위한 해수)를 주입한 이력 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하여 국내생산 수산물에 대한 주기적인 방사능 검사와 더불어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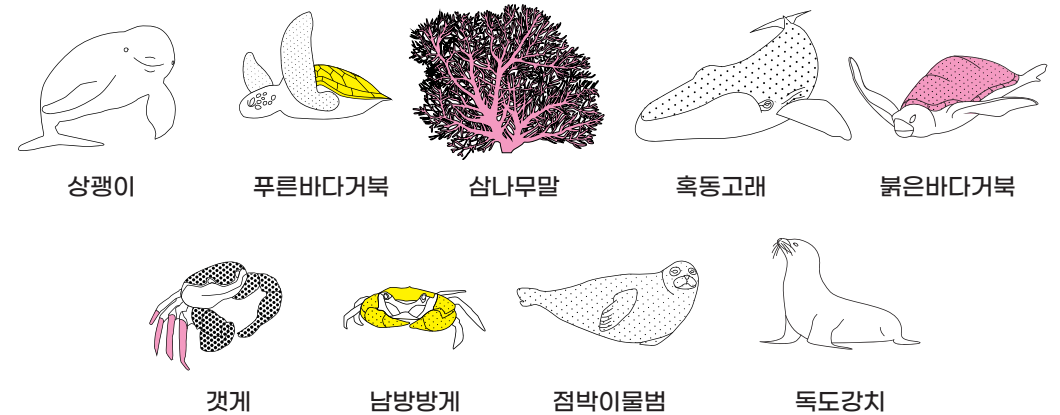
선박과 해양시설에서는 선박에 사용되는 기름과 관련하여 선저폐수, 폐윤활유, 액상슬러지, 기름걸레 등의 다양한 오염물질이 발생합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 등에 따라 무역항 내에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선박폐유 수용시설을 현대화하여 폐유가 바다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오염방제 활동을 통해 해양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과 폐기물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4. 멸종위기 보호대상 해양생물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생존을 위협받거나 보호해야 할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해양생물 서식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호해양생물을 추가 지정하고, 멸종위기·우려종의 종장기 복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위해 해양보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한 종은 83종으로 귀신고래를 포함한 포유류 18종, 흰발농게를 포함한 무척추동물 34종, 해조류 7종, 붉은바다거북을 포함한 파충류 5종, 고래상어를 포함한 어류 5종, 바다오리를 포함한 조류 14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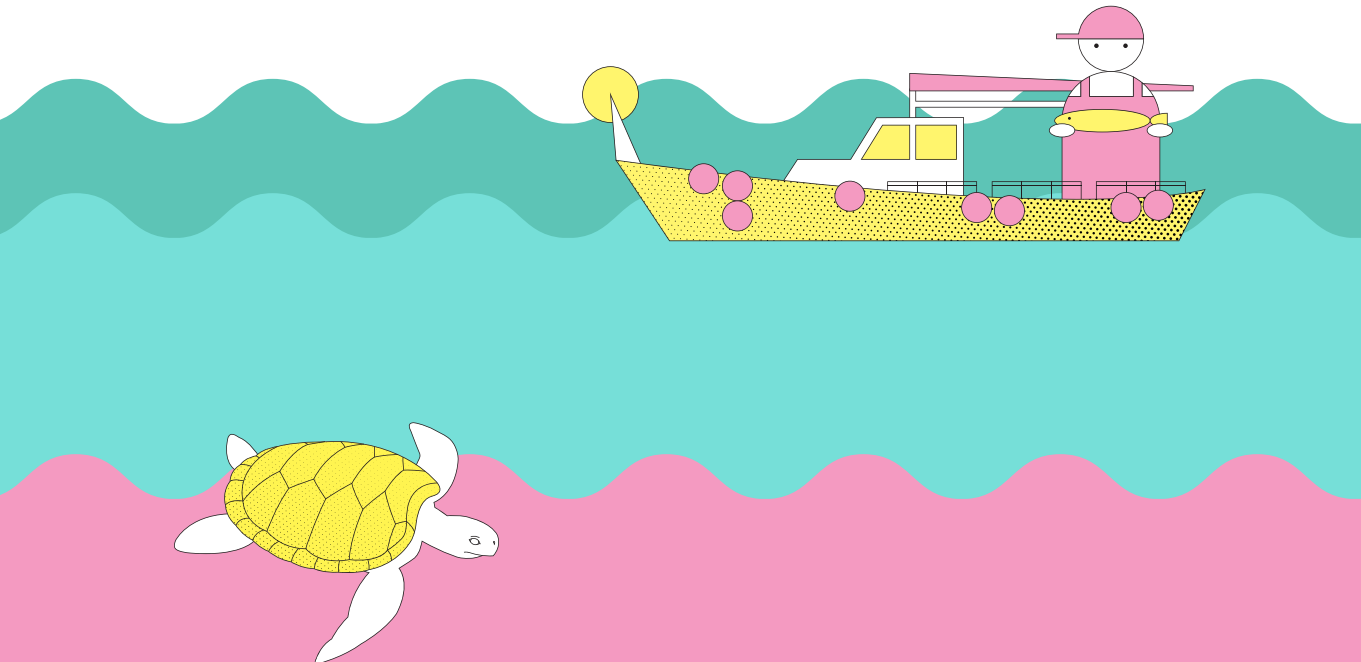


에필로그

전 인류의 소중한 자원인 바다를 지키기 위하여 정책과 국제적 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우리 바다를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바다를 위하여 '포용', '성장', '상생'의 의미를 잊지 않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를 상생하며 열어가는 미래의 바다를 함께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Epilog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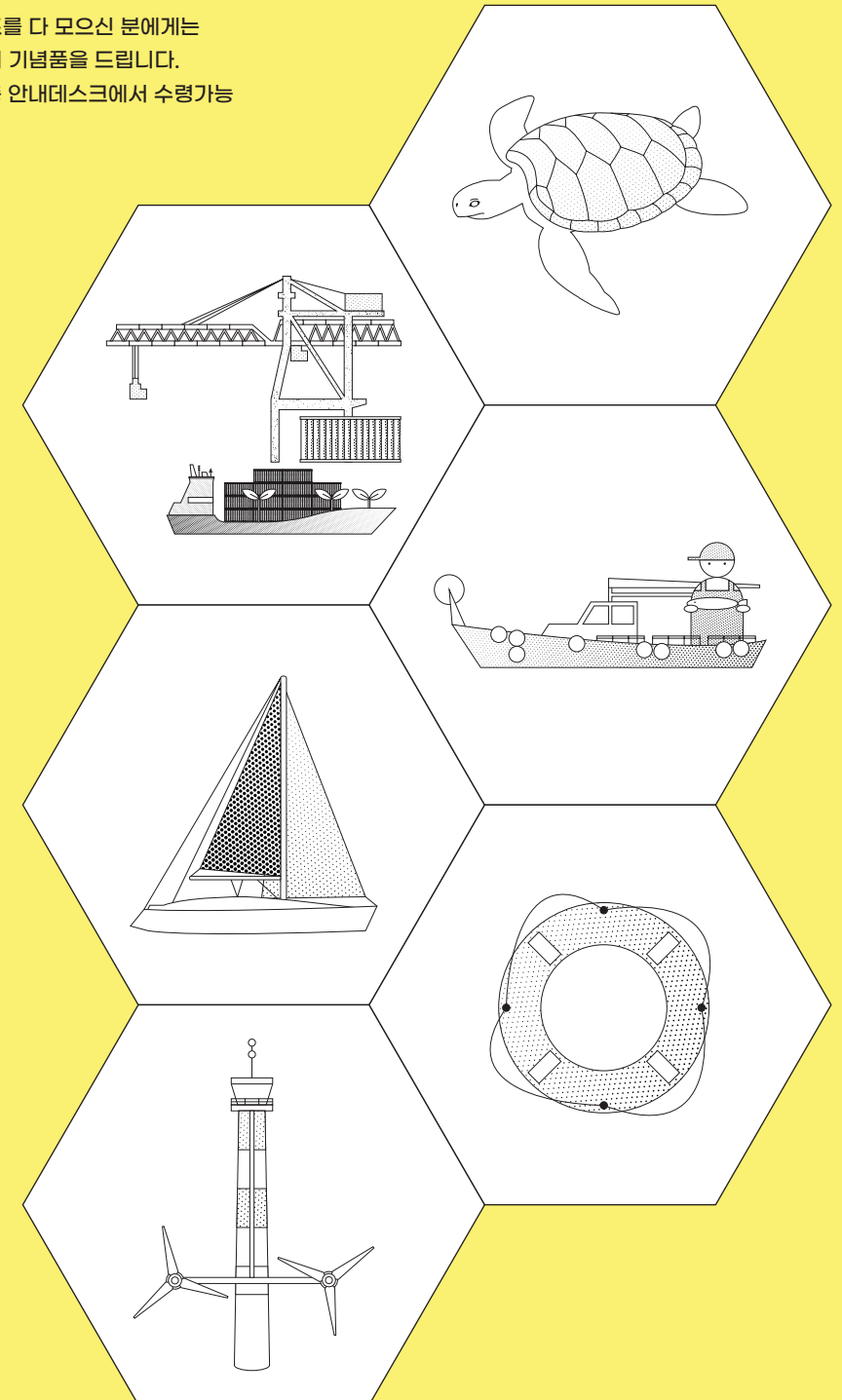
The MOF, cooperating internationally and initiating policies to protect the oceans, a precious resource for all humanity, will continue to care for our sea. We hope that you will not forget the meaning of 'embrace', 'growth', and 'coexistence' for our sea, and will keep your eyes on the sea of the future to be unlocked by cooperation in various fields.



스탬프 투어

'우리가 열어가는 바다'의 전시 내용과 연계하여, 상설전시실에 위치한 관련 전시자료를 찾아보고 스탬프를 모아주세요!

스탬프를 다 모으신 분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2층 안내데스크에서 수령가능



미래의 바다를 위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적고,
나무집계를 사용하여 철망에 걸어주세요



해양수산 통합행정 25년 기념전시

The 25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MOF

우리가 열어가는 바다

-포용·성장·상생-

The Ocean We Open / Our Open Ocean

'embrace = our', 'growth = open', and 'coexistence = ocean'

2021. 8. 25. ~ 10. 31.

국립해양박물관 해양수산부

총괄 | 김태만

전시기획·진행 | 백승옥 김윤아 조민주 신소명 김경민 박솔희

전시디자인·번역 | 이진영 김보람

자료제공 | 해양수산부 한국어촌어항공단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공단 국립해양생물자원관 GREENPEACE

© 국립해양박물관 2021

이 자료의 저작권은 국립해양박물관에 있습니다.

© 2021, Korea National Maritime Museum All right reserved

관람안내

장소 국립해양박물관 4F 테마전시실

관람시간 평일 9:00~17: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9:00~19:00
휴관일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개관 후 그 다음 첫 번째 평일 휴관)

관람료 무료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45
T. 051-309-1900
www.knmm.or.kr

Korea National Maritime Museum
45 Haeyang-ro 301beongil, Yeongdo-gu, Busan, 49111, Korea

이 홍보물은 재생용지로 만들어졌습니다.
This pamphlet is made of recycled paper.